



# 새만금서 글로벌 배터리 산업 조망

‘I.B.T.F in 새만금’ 광파르  
7개국 참가 20개 세션 진행  
이차전지 중심지 도약 계기

전북특별자치도(도지사 김관영)와 새만금개발청(청장 김의겸), 군산시(시장 김임준)는 23~24일 군산새만금 컨벤션 센터(GSCO)에서 ‘2025년 I.B.T.F (International Battery Tech Future) in 새만금’ 국제 콘퍼런스 행사를 개최한다. (관련사진 3면)

이번 행사는 새만금의 이차전지 산업육성 콘퍼런스를 국제적인 규모로 격상해 개최되며, 새만금이 글로벌 이차전지 사업의 중심지로 도약하는 기념비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동성과 에너지를 위한 배터리 혁신(Battery Innovation For Mobility and Energy)’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7개국에서 참가자들이 모여 20개 세션을 통해 이차전지 글로벌 시장 동향과 산업발전 전략, 정책 지속가능성과 신규 비즈니스 모델, 통합 스마트제조와 공급망 관리, 차세대 이차전지 기술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국내외 저명 연사들이 참여하여 EU 배터리사업 현황(알파 호만, Ikda Homan), ESS기술과 배터리 소재 최신 동향(알레이샤 장, Alasia Zhang), 차세대 배터리 역할(김명환 한국화학연구원장), 한중 리튬배터리산업의 경쟁과 협력(저우보, Zhou Bo), 모빌리티 전동화 시대의 에너지



전북 청년 창업박람회 개막

23일 전주 한옥마을 일원에서 ‘2025년 전북 청년 창업박람회’ 개막식이 열린 가운데, 김관영 도지사 등 참석자들이 ‘청년의 꿈, 연결로 현실이 되다’라는 구호 아래, 종이비행기를 날리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전북 청년 창업박람회는 24일까지 열린다. (관련기사 2면)

솔루션(김동진 현대차실장) 등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새만금은 2023년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된 이후 대규모 RE100 인프라와 스마트그린산단 조성을 바탕으로 아시아 최대 친환경 배터리 산업벨트로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새만금은 준비된 산업용지와 풍부한 재생에너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국내외 기업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국내외 투자와 기술협력을 촉진할 계획이다.

전북특별자치도 신원식 미래첨단산업국장은 “이번 콘퍼런스는 전북이 글로벌 이차전지 메카로 거듭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향후, 이차전지 산업 전주기 지원체계를 고도화해, 전라도 이차전지 산업이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를 이끌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새만금개발청 김의겸 청장은 “2025 IBTF in 새만금은 산·학·연·관을 포함한 다양한 영역에서 활약하고 계신 분들의 협력의 장이 될 것”이라며

“인력양성, 산업생태계 구축 등 새만금에 산재한 현안을 되돌아보고, 새만금 이차전지 산업의 밝은 내일을 여는 기폭제가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임준 군산시장은 “이차전지가 국가 전략자산으로서 에너지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라면서, “이 자리가 지식 교류의 장을 넘어 협력과 혁신, 그리고 화합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군산=김만호 기자



지난 22일 서울 정동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열린 자율주행 기업 정책간담회.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 “자율주행, 우리 미래의 핵심”

김윤덕 국토부장관, 국내 자율주행차 대표 기업인과 간담회

전북 출신인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2일 오후 서울 정동 국토발전전시관에서 국내 자율주행차 대표 기업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김 장관이 최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2025 세계 지능형 커넥티드 자동차 콘퍼런스(World Intelligent Connected Vehicles Conference, 이하 WICV)’ 참석차 중국을 방문한 이후 이뤄졌다.

특히 김장관은 국내 자율주행 기업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자율주행 경쟁력 제고 방안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 장관은 “자율주행 산업은 우리 경제의 진짜 성장을 위한 미래 핵심 산업이다”며 “우리 기업이 중국을 비롯한 해외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이 힘을 합쳐 총력전을 펼쳐야 하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도 전방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자율주행차 대표들

은 민관이 총력전을 펼쳐야 한다는 장관의 발언에 공감했으며 다양한 예외적 상황(Edge Case) 데이터 확보를 위한 실증공간 확대, 레벨4 무인 자율차 개발 비용 및 판로 확보 지원, 과감한 규제 개선 및 선제적 제도 마련 등을 건의했다.

이에 김 장관은 “정부는 자율주행 AI 개발·학습을 위한 전용 데이터센터 구축, 자율주행 실증도시 조성, 교통취약지역 자율주행 서비스 확대 등 인프라 조성 및 실증 확대를 조속히 추진하겠다”면서 “지난달 15일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 등에서 논의했던 원본 영성 데이터 활용, 스로틀 등 안전우선 규제를 연내 차질 없이 정비하여, 우리 기업이 자율주행차를 자유롭게 개발하고 실증할 수 있는 정책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오늘 기업들의 애로와 건의는 조만간 발표할 자율주행 경쟁력 제고 방안에 적극 반영하고, 자율주행 산업이 한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권혁성 기자

## “중대 교권침해 엄정 대응… 관할청 고발·학교장 처분 권한 강화”

최교진 교육부장관, 전주미산초에서 현장 간담회

“교육활동보호센터, 교육지원청까지 확대 설치할 것”

이번 간담회는 새롭게 추진될 교육활동 보호 정책의 현장 적합성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진행됐다.

간담회에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관계자와 전주미산초등학교 교원들이 참여해 교육부 및 전북교육청 학교민원 대응 방안과 교육활동보호 정책 성

과·개선점 등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교원들과 함께 특이·악성 민원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또한 교사 개인이 아닌 학교 단위에서의 민원 대응 및 지원 체계를 현장에 정착시키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왔다.

최 장관은 “과태료 부과 처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피해 교원을 위한 특별휴가 기간의 연장을 검토하는 등 분리 조치의 내실화와 선생님들의 마음 건강 보호에 세밀하게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 장관은 “학교 민원접수 창구를 단일화하고 민원 대응팀의 책무성을 강화하며 관할청의 학교 지원 확대를 통해 악성민원에 대한 기관 단위 학교민원 대응 체계를 확립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최 장관은 “교육활동보호센터의 설치와 교육지원청까지 확대하고 공제사업과 연계해 조기 분쟁조정, 법률·상담 지원 서비스를 강화할 것”이라며 “교권보호위원회의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도 현장과 소통하면서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안전한 민원대응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용 민원상담실을 확대하고 학교 구성원 맞춤형 교육과 연수

등을 통한 인식 변화를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했다.

끝으로, 최교진 장관은 “여기 모이신 교육 관계자 여러분 교육정책은 교원과 학생, 그리고 학부모 모두가 함께 만들어 가는 협력의 결과물일 것”이라며 “교육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좀 더 세심하게 살피며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학교가 신뢰받는 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토·일요일 신문 쉽니다.

##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 고창



고창읍성